



보도자료

GE헬스케어, 청계광장을 핑크로 물들이며 유방암 퇴치를 염원하는 핑크리본 캠페인 전개

- GE코리아 직원,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맞아 '헬씨메지네이션 워크' 개최
- 2010년부터 휴먼 핑크리본 만들기, 걷기대회, 유방암 강좌 등 실시해 대국민 대상 유방암 인식 제고에 앞장서

(2014년 9월 29일, 서울) - GE헬스케어 코리아(대표이사 사장 시아 무사비)는 지난 27일(토) 청계광장에서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유방암 인식향상을 위한 '헬씨메지네이션 워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GE코리아 직원 및 가족 약200여명이 시민들과 함께 청계천 입구에서 유방암 예방을 상징하는 휴먼 핑크리본을 만들어 유방암 인식의 중요성을 알렸고, 청계천 걷기대회를 통해 유방암 퇴치를 기원했다. 또한, 유방암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유방암 자가진단 강좌를 실시했다. 한편, '비너스회'와 함께 개최한 자선바자회에서 거두어진 수익금은 앞으로 전액 유방암환자 치료를 위해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5회를 맞이한 '헬씨메지네이션 워크'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 왔다. 작년 한강시민공원 독성지구에서 다문화가정을 초대해 유방암 무료 검진,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유방암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더욱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한암협회, 한국유방건강재단, 유방암환우회 '한국비너스회' 등과 손잡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GE헬스케어 시아 무사비 대표이사 사장은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 9명 중 1명 꼴로 발병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우 치밀유방의 비율이 높아 유방암 위험요소가 서구 여성들에 비해 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다양한 진단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유방암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GE헬스케어는, 이번 '헬씨메지네이션 워크'를 통해 더욱 많은 여성들에게 유방암의 위험성과 유방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 인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핑크리본 보여 유방암 퇴치 기원해요!” GE코리아 직원 및 가족이 청계광장에서 열린 ‘헬씨메지네이션 워크’에서 휴먼 핑크리본을 만들고 유방암 인식 향상을 기원했다.

#

▲GE헬스케어에 대하여

GE헬스케어는 전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혁신적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GE는 역량 있는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난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GE헬스케어는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및 IT, 환자 모니터링 및 진단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바이오 약품 제조 기술, 그리고 성과 개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GE헬스케어의 ‘헬씨메지네이션(healthymagination)’에 대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GE가 약속한 60억 달러 공약의 일환인 헬씨메지네이션 인증 제품은 지금까지 2억3천4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헬씨메지네이션은 확실하고 활용도 높은 정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그들이 스스로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healthymagination.com/>에서 얻을 수 있다.

#



GE Healthcare

GE헬스케어코리아

윤명옥 이사 02-6201-3302

한영화 차장 02-6201-3318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최은정 팀장 02-6323-5040

박도윤 과장 02-6323-5074

홍여원 대리 02-6323-5082